

공주시 도시재생 관련 해외(유럽) 도시건축 사례조사 보고서

보고자 : 지역도시연구부 수석연구위원 김정연

방문지 : 프랑스(스트라스부르, 콜마르) 스위스(루체른, 루가노) 이태리(꼬모, 밀라노, 친퀘테레, 베니스)
독일(프랑크푸르트, 다름슈타트, 프라이부르크, 뮌헨, 밤베르크) 오스트리아(인스부르크)
<세계문화유산 : 4개 지역 방문>

기 간 : 2014년 10월 11일(토) ~ 2014년 10월 19일(일) (8박 9일)

차 례

I. 출장 목적 및 개요

1. 출장 목적
2. 출장 개요
3. 출장 내용

II. 방문지별 조사결과

1. 독일
2. 프랑스
3. 스위스
4. 이탈리아
5. 오스트리아

출장 목적 및 개요

1. 출장 목적

-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해외의 기존마을과 도시재생 사례를 직접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공주시의 실정에 맞게 응용하여 도입할 수 있는지를 파악
-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 에너지제로, 건축환경 개선, 수변공간의 활성화, 역사자원 재활용, 지역의 지리적 특성화, 문화예술을 통한 관광자원화, 랜드마크 건축문화 창출, 그린교통환경개선, 도시의 브랜드화 등 해외사례를 방문 체험

출장 목적 및 개요

2. 출장 개요

1) 연수국가 및 방문지

(1) 프랑스

- 스트라스부르크 : 뽀띠프랑스
- 콜마르 : 뽀띠베니스

(2) 스위스

- 루체른 : 카펠교 중심의 구도심
- 리기산 : 산악마을
- 루가노 : 최고 부자 휴양마을, 마리오보타 건축작품

출장 목적 및 개요

(3) 이탈리아

- 꼬모 : 꼬모호수
- 밀라노 : 엠마누엘레 2세 갤러리아, 피에라밀라노
- 첸퀘테레3개 마을 : 몬테로소, 마나롤라, 라스페치아
- 베니스 : 해양도시

(4) 오스트리아

- 인스부르크 : 산악관광 중심형 마을

(5) 독일

- 뮌헨 : BMW기념관, 괴테박물관, 마이자일
- 밤베르크 : 구시가지 및 구시청사
- 다름슈타트 : 발트슈피겔레 생태건축
- 프랑크푸르트 : 그린시티 프로젝트(에너지), 시유림
- 프라이부르크 : 생태환경주거단지(보봉마을)

출장 목적 및 개요

2) 출장기간

- 2014. 10. 11(토) ~ 2014.10.19(일) / 8박 9일

3) 출장 방법

-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해외 도시건축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
- 허재완(단장, 제21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중앙대학교 교수), 황희연(자문위원, 제20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충북대학교 교수), 김홍규(부단장, 국토도시교육원장, 연세대학교 교수) 외 외 37명 참여
-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현장조사
- 전용버스 이동 중에 도시재생에 관한 각자의 의견 발표 및 질의 응답
- 마지막 날 종합적인 정리

출장 목적 및 개요

4) 방문일정

일자	연수나라	연수도시	방문대상지
2014.10.12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쁘띠프랑스, 철도역
		꼴마르	쁘띠베니스, 구시가지
	독일	프라이부르크	보봉지구, 카우프하우스
2014.10.13	스위스	루체른	카펠교, 문화컨벤션센터(KKL)
		리기	리기산
		루가노	마리오보타 건축작품, 마리오보타 사무실
2014.10.14	이탈리아	꼬모	꼬모호수
		첸케테레	리오마조레, 라스페치아
2014.10.15	이탈리아	밀라노	비토리오 엠마누엘 2세 갤러리아, 피에라밀라노
		베네치아	두칼레 궁전, 산마르코 광장
2014.10.16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황금지붕, 호프부르크 궁전
2014.10.17	독일	원헨	신 시청사, BMW 박물관 전시장
		밤베르크	구시가지, 신궁전
2014.10.18	독일	다름슈타트	발트슈피렐레
		프랑크푸르트	시유림, 괴테생가, Myzeil

출장 목적 및 개요

3. 조사 내용

- 역사자원 재활용, 지형지리적 특성의 활용 사례
- 문화 예술을 통한 관광자원화 사례
- 랜드마크 건축문화 창출 사례
-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 및 에너지제로 현장 방문
- 건축환경 개선 및 수변 공간의 활성화 사례
- 만남과 교류의 거점공간 창출 사례
- 공간과 건축 디자인, 역사도시의 특성을 살린 경관 형성

방문지별 조사결과

1. 독일 - 보봉지구(프라이부르크)



1) 위 치 : 79100 Freiburg, 독일

2) 특 징 : 에너지 제로 지구

3) 시사점 : 보봉지구는 독일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이 좋은 주택단지이다. Innovation Academy의 Hans-Jörg Schwander의 브리핑에 따르면, 보봉지구는 위에서 아래로의 개발이 아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150여 채의 태양광 연립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닌 기존의 군사시설을 주민들의 커뮤니티 시설로 탈바꿈 시켰다고 한다. 도시재생과 마을 만들기 역시 보봉지구처럼 주민들의 참여가 1순위가 되어야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며,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방문지별 조사결과

1. 독일 - 카우프 하우스(프라이부르크)



1) 위 치 : Münsterplatz 24, 79098 Freiburg im Breisgau, 독일

2) 특 성 : 역사건축

3) 시사점 : 카우프하우스는 프라이부르크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물 가운데 하나이다. 14세기에 완공되었고, 1946년에서 1947년까지는 주 입법기관의 회의 장소로 사용되었고, 1947년부터 1951년 까지는 바덴 의회 의사당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행사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의 도시재생 또한 역사적인 건축물이나 기존의 건축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닌 지역 고유의 독특성을 담아내도록 하여 카우프하우스처럼 대대로 사용하여 건물에 의미가 담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문지별 조사결과

1. 독일 - 신 시청사(뮌헨)



1) 위 치 : Marienplatz 8, 80331 München, 독일

2) 특 성 : 도시재생

3) 시사점 : 뮌헨의 신 시청사는 마리엔 광장에 위치한 고딕 양식의 건축물이다. 역사적인 건축물로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기존의 것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재 활용하거나 물리적인 요소의 보존을 통해 지역의 명소로 활용하였다. 도시재생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바, 역시 기존의 도시를 재개발하는 것이 아닌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기능적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다.

방문지별 조사결과

1. 독일 - BMW 박물관 & 전시관(뮌헨)



1) 위 치 : Am Olympiapark 2, 80809 München, 독일

2) 특 성 : 현대건축디자인

3) 시사점 : BMW 박물관&전시관은 BMW 회사가 생산한 모델들을 전시하고, 기업의 역사를 보여주는 곳이다. 독일을 방문할 때 꼭 방문하는 관광명소로서 기업홍보와 도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사례라 볼 수 있다. 이는 마을 만들기나 도시재생의 한 방법으로 단순히 관과 주민들만의 대화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과의 연계는 도시에 경제적, 문화적으로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방문지별 조사결과

1. 독일 - 구 시가지(밤베르크)



1) 위 치 : 96047 Bamberg, 독일

2) 특 성 : 도시재생

3) 시사점 : 밤베르크는 운하가 건설된 레크니츠강과 마인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하여 있다. 구시가지에는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하여 옛 건물들이 고풍스럽게 자리잡고 있다. 강이 접하는 곳에 있어 일찍이 경제적으로 활성화되었음에도 효율이 떨어지는 기존의 건물을 부수지 않고 유지함으로써 현재에 와서는 관광명소로 지역경제가 성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다. 수많은 풍파를 헤쳐 온 옛 것이 주는 힘을 인지하고 마을 만들기 와 도시재생에 적용할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방문지별 조사결과

1. 독일 - 신궁전(밤베르크)



1) 위 치 : Domplatz 8, 96049 Bamberg, 독일

2) 특 성 : 역사건축

3) 시사점 : 밤베르크 신궁전은 1695년에 착공하여 1703년에 완공하였다. 궁전에 면한 넓은 광장은 ‘독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이라고 일컬어진다. 현재는 역사 박물관과 주립 박물관, 미술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화재를 단순히 보존하는 것이 아닌 박물관등으로 활용함으로써 보존하고, 독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이라는 수식어를 부침으로써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였다. 도시재생에 있어서 도시에 속한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은 당연하며, 나아가 밤베르크 신 궁전처럼 적절하게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방문지별 조사결과

1. 독일 - 발트슈피렐레(다름슈타트)



1) 위 치 : 64289 Darmstadt, 독일

2) 특 성 : 현대건축디자인

3) 시사점 : 발트슈피랄레는 훈데르트바서의 작품으로 훈데르트바서의 자유로운 작품세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건축물이다. 처음 받은 인상은 굉장히 기이해 보이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디자인이나, 아무도 하지 않았던 디자인이기에 그 자체만으로도 독특한 의미를 가진다. 발트슈피랄레에 살고있는 사람들은 불편하겠으나, 세계적인 건축가의 작품세계가 명확하게 드러난 건물이 도시 내에 있음으로써 그 도시에 특징을 부여하며, 관광객을 끌어들임으로써 지역 경제가 성장하였다. 마을 만들기나 도시재생에도 발트슈피랄레 처럼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건축물과 세계적인 건축가의 건축물을 적극 유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방문지별 조사결과

1. 독일 - 시유림(프랑크푸르트)



1) 위 치 : 프랑크푸르트 마인강 남쪽

2) 특 성 : 그린시티 프로젝트

3) 시사점 : 프랑크푸르트의 그린시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린벨트이자 프랑크푸르트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야생동물과 숲의 생태적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다. 프랑크푸르트는 도시 면적의 약 52%가 녹지공간으로 구성되어 친환경적인 도시로서 앞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시유림은 경제적인 발전 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발전까지 고려한 균형 있는 발전과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자원의 역할을 한다. 마을 만들기과 도시재생에 있어서도 지역 내의 환경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나아가 주변 환경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방문지별 조사결과

1. 독일 - 괴테생가(프랑크푸르트)



1) 위 치 : Großer Hirschgraben 23-25, 60311 Frankfurt am Main, 독일

2) 특 성 : 문화예술 유산

3) 시사점 : 괴테생가는 문화예술의 거장인 괴테가 태어나고 수많은 작품들을 집필한 공간이다. 세계적인 인물의 생가를 보존함으로써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여 매년 수백만명의 관광객을 프랑크푸르트로 끌어들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류열풍의 영향과 적극적인 홍보 및 개발로 드라마 속 명소가 외국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관광명소는 만들어지는 것으로 도시재생과 마을 만들기에서도 이러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다.

방문지별 조사결과

1. 독일 - Myzeil(프랑크푸르트)



1) 위 치 : Zeil 106, 60313 Frankfurt am Main, 독일

2) 특 성 : 현대건축디자인

3) 시사점 : 마이자일은 Massimiliano Fuksas가 설계한 작품이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유리를 많이 사용하여 채광을 최대화했을 뿐만 아니라 빗물이 잘 흐르게 설계하여 수 전체를 모아 식수를 뺀 건물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에 사용한다. 뿐만 아니라 곡선을 최대한 살려 건축적인 묘미까지 드러내며 큰 구멍이 있는 건물 외관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는다. 창의적인 건축물은 거리 자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자일거리는 우리나라의 명동과 같은 거리로 거리의 특색에 맞게 화려한 외관을 자랑한다. 마을 만들기에서도 지역의 거리가 가지는 특색에 맞게 건물의 외관을 꾸민다면, 방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의 특색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방문지별 조사결과

2. 프랑스 - 뽀띠프랑스(스트라스부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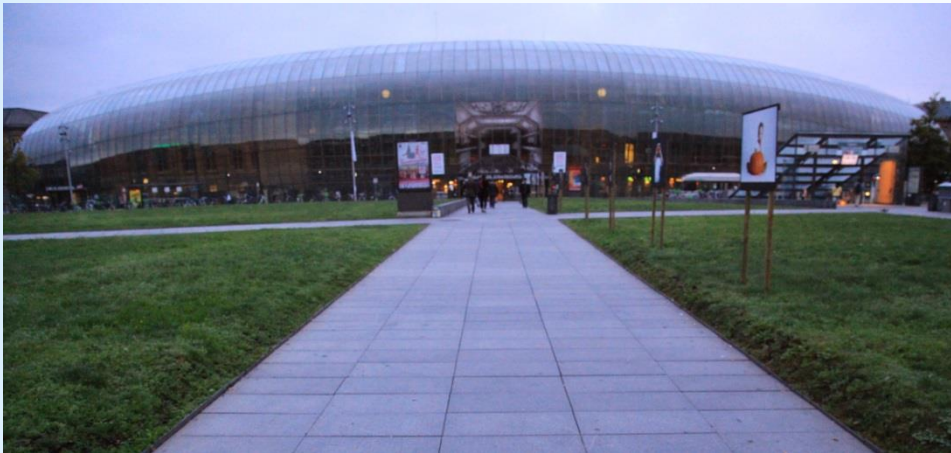
1) 위 치 : 스트라스부르, 프랑스

2) 특 성 : 세계문화유산, 수변공간 개발

3) 시사점 : 작은 프랑스라는 뜻으로 스트라스부르 옛 시가지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중세의 모습이 잘 보존된 지역으로 오랜 세월 사람들의 발길이 닿아 반들반들해진 돌길을 편안한 마음으로 걸을 수 있는 곳이다. 유람선을 타고 도시 전경을 구경할 수 있다. 옛 건물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를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마을 만들기나 도시재생에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건물이나 지역은 물리적인 요소일 뿐 특성을 붙여넣는 것은 민, 관,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잘 살려 적절한 특성을 붙여넣는 것이 중요하다.

방문지별 조사결과

2. 프랑스 - 철도역(스트라스부르)



1) 위 치 : 20 Place de la Gare, 67000 Strasbourg, 프랑스

2) 특 성 : 현대건축디자인

3) 시사점 : 옛 기차역 건물을 유리 and 철골로 덮은 기차역으로 거대한 해삼 모습의 초현대식 건물이다. 스트라스부르의 현대를 대표하는 건물로 기존의 건물을 그대로 보존한 채 현대적인 요소를 추가하여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을 재창출하였다. 도시재생에도 옛 것을 그대로 최대한 살리면서도 지역의 특색이 드러날 수 있도록 새로운 요소를 적절히 추가할 필요가 있다.

방문지별 조사결과

2. 프랑스 - 뽀띠베니스(꼴마르)



1) 위 치 : La Petite Venise, Rue Turenne, Colmar, 프랑스

2) 특 성 : 수변공간개발

3) 시사점 : 작은 베니스라는 뜻으로 알자스 지방 고유의 풍광을 잘 간직한 강변거리이다. 굉장히 아름다운 강변 경치와 중세 목조 가옥들을 그대로 보존한 곳으로, 뽀띠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지역 전체를 보존함으로써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존의 자연자원인 강을 잘 활용한 개발은 인상적이며, 이는 도시재생과 마을 만들기에서도 참고하여 수변공간을 활용한 개발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방문지별 조사결과

2. 프랑스 - 구시가지(콜마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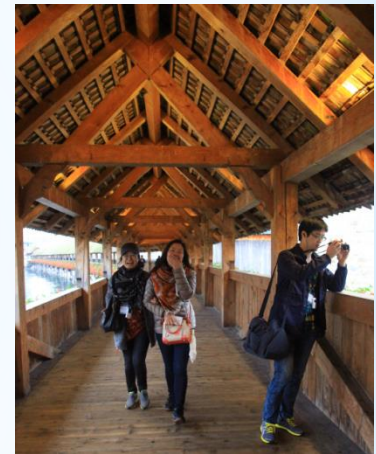
1) 위 치 : Colmar, 프랑스

2) 특 성 : 도시재생

3) 시사점 : 콜마르의 구 시가지는 16세기의 건물 및 풍경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파스텔톤 건물과 운하를 따라 늘어선 카페들은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이러한 도시 풍경은 일본 애니메이션 명작인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배경이 되었다. 불도저식 개발이 주가 되었던 우리나라로서는 옛 것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지만 반대로 남아있는 옛 것은 더욱 소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을 만들기과 도시재생에서는 남아있는 옛 것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방문지별 조사결과

3. 스위스 - 카펠교(루체른)



1) 위 치 : Kapellbrücke, 6002 Luzern, 스위스

2) 특 성 : 랜드마크

3) 시사점 : 카펠교는 1333년 로이스강에 놓인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긴 나무다리로 길이가 200m에 이른다. 위를 덮고 있는 지붕의 들보에는 스위스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나 루체른 수호성인의 생애를 표현한 112매의 삼각형 판화 그림이 걸려 있다. 만들어진지 700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사람들의 통행이 가능한 이유는 옛 것을 잘 보존하고,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또한 옛 것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용을 함으로써 후대에도 없어지지 않고 사용되게 하는 것이 옛 것을 보존하는 길이다.

방문지별 조사결과

3. 스위스 - 문화컨벤션센터KKL(루체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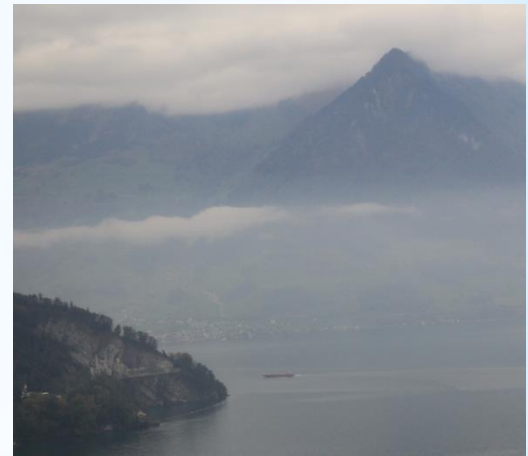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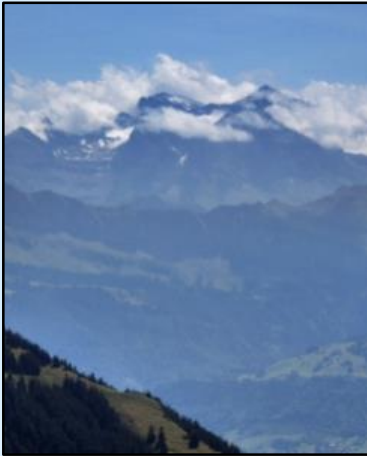
1) 위 치 : Europaplatz 1, 6005 Luzern, 스위스

2) 특 성 : 현대건축디자인

3) 시사점 : 1934년 지은 예술컨벤션센터(Art and Convention Centre)가 노후하자 1995년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같은 자리에 건설하기 시작하였고 1998년 클라우디오 아바오(Claudio Abbado)가 지휘하는 베를린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으로 콘서트홀을 개관하였다. 2000년 루체른미술관을 비롯해 전관을 개관하였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아닌 보수를 함으로써 건물의 역사성을 보존하고, 현재의 필요에 맞는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도시재생이나 마을 만들기에서도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는 보수하여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문지별 조사결과

3. 스위스 - 리기산(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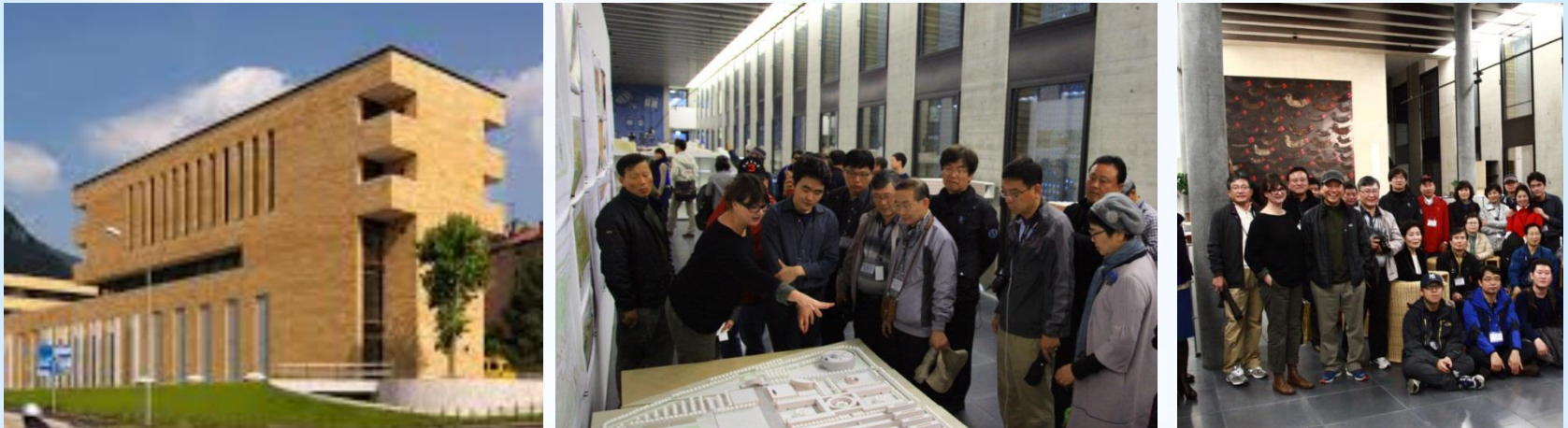
1) 위 치 : 6410 Arth, 스위스

2) 특 성 : 산악지형개발

3) 시사점 : 리기산은 아름다운 경관으로 인해 '산들의 여왕' 이라고 불린다. 산악지형 개발이 굉장히 잘 이루어진 곳으로, 산 중턱에 있는 모든 호텔들과 레스토랑들은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명소들이다. 우리나라의 산은 단순히 등산을 즐기는 사람만을 위한 공간이다. 그러나 리기산의 경우처럼 좀 더 자유로운 개발을 통해 산장이나 음식점들이 모두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로 만든다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본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풍부한 자연환경자원을 리기산 처럼 활용한다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방문지별 조사결과

3. 스위스 - 루가노



1) 위 치 : Lugano, 스위스

2) 특 성 :

3) 시사점 : 마리오 보타는 인간 중심의 설계를 추구하는 세계적인 건축가이다. 루가노에는 마리오보타의 작품이 무수히 많으며 각각이 모두 관광명소이자 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세계적인 건축가의 작품이 도시 내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지역의 색깔이 다양해짐을 루가노를 통해 알게 되었다. 마을 만들기나 도시재생 시에 문화적 요소도 중요한 이유를 루가노를 통해 알 수 있다. 세계적인 건축가의 작품은 단순히 건물 하나가 아닌 지역의 색깔을 다양하게 해주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방문지별 조사결과

4. 이탈리아 - 친퀘테레



1) 위 치 : 친퀘테레, 이탈리아

2) 특 성 : 세계문화유산, 생태마을조성

3) 시사점 : 친퀘테레는 세계문화유산이자 자연과 어우러진 생태마을이다. 바위 위에 바다를 바라보고 늘어서 있는 파스텔톤의 집들은 마치 집 또한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것처럼 자연과 동화되어 보인다. 도시재생과 마을 만들기에서의 중점 중 하나도 바로 자연환경 조성이다. 자연환경 조성 시 인위적인 자연환경 조성도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도움이 되겠지만, 친퀘테레와 같이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살린다면 더욱 자연스럽고 아름다울 것이다.

방문지별 조사결과

4. 이탈리아 - 비토리오 엠마누엘 2세 갤러리아(밀라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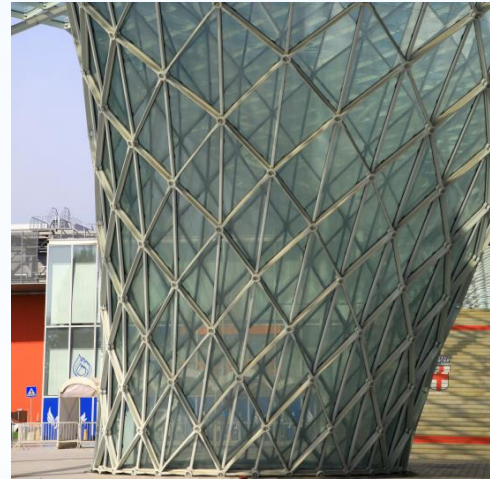
1) 위 치 : Piazza Duomo, 20123 Milano, 이탈리아

2) 특 성 : 역사건축

3) 시사점 : 1865년에 착공하여 1877년에 완공된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갤러리아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쇼핑몰이다. 옛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쇼핑몰로 운영을 함으로써 건물의 외관은 도시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도록 하되, 그 존재 자체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후대까지 지속적으로 활용되도록 하였다. 옛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지역이 가진 고유의 자원을 잘 활용하고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방법이다.

방문지별 조사결과

4. 이탈리아 - 피에라 밀라노(밀라노)



1) 위 치 : Fiera, Milano, MI, 이탈리아

2) 특 성 : 현대건축디자인

3) 시사점 : 피에라 밀라노는 마이자일을 설계한 건축가 **Massimiliano Fuksas**의 작품이다. 현재는 전시 회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마이자일과 같이 빗물을 모아 식수를 제외한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친환경적인 도시 이미지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소용돌이 모양의 유리는 앞서 말한 친환경적인 요소 뿐 아니라 건축미도 잘 드러냄으로써 피에라 밀라노가 밀라노를 대표하는 건축물 중 하나로 손꼽히게 만든 역할을 한다. 미관과 환경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건축 사례를 많이 참고하여 도시재생과 마을 만들기에 많이 적용할 필요가 있다.

방문지별 조사결과

4. 이탈리아 - 두칼레 궁전(베네치아)



1) 위 치 : San Marco, 1, 30124 Venezia, 이탈리아

2) 특 성 : 세계문화유산, 역사건축

3) 시사점 : 두칼레 궁정은 세계문화유산이며, 고딕양식의 대표적 건축물로 과거 베네치아 공화국 총독의 관저였으며, 현재는 각종 예술작품들이 전시되어있다. 옛 건물을 그대로 보존하고 시대의 필요에 따라 그 기능을 바꿈으로써 건물이 가지는 역사성을 그대로 보존하고 활용하였다. 현재에 와서는 역사적인 건축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이는 건물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옛 건물에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옛 것을 지키는 중요한 일임을 마을 만들기과 도시재생에 이바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점이다.

방문지별 조사결과

4. 이탈리아 - 산 마르코 광장(베네치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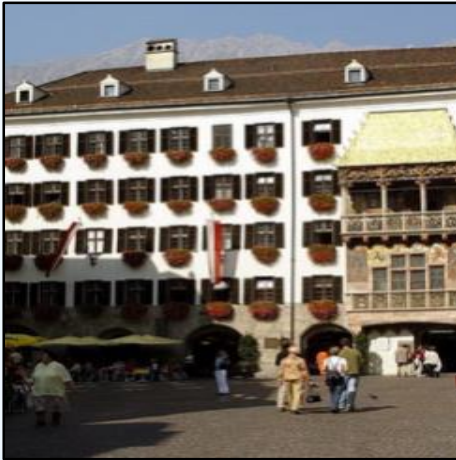
1) 위 치 : San Marco, 1, 30124 Venezia, 이탈리아

2) 특 성 : 고대도시광장

3) 시사점 : 산마르코 광장은 베네치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다. 열주로 가득한 건물이 광장을 'ㄷ'자로 둘러싸고 있다. 광장은 하나의 거대한 홀처럼 보이며, 나폴레옹은 이를 두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응접실(홀)이라 불렀다. 현재에도 수많은 관광객이 모여드는 곳으로 광장 자체보다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두칼레 궁정과 산마르코 대성당을 보러 온다. 하지만 산마르코 광장이 있기에 두칼레 궁전과 산마르코 대성당이 더욱 빛을 본다고 할 수 있다. 마을 만들기과 도시재생 시에도 지역에 있는 자원들 중 서로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방문지별 조사결과

5. 오스트리아 - 황금지붕(인스부르크)



1) 위 치 : Herzog-Friedrich-Straße 15, 6020 Innsbruck, 오스트리아

2) 특 성 : 역사건축

3) 시사점 : 후기 고딕양식의 건물의 발코니를 덮고 있는 지붕으로, 페르디난도 4세가 1420년 티롤 주 영주궁궐로 지은 후, 황제 막시밀리안 1세가 2,738개의 동판자로 지붕을 덮게 해 1500년에 완공됐다. 실제로 황금이 사용되지는 않았다. 황금지붕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관광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많은 관광객들은 이 가짜 황금지붕을 보기 위해 모여든다. 황금지붕의 시사점은 건물의 의미는 건물 자체가 아니라 사람이 부여한다는 것이다. 관광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지만 기존의 관광자원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황금지붕과 같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

방문지별 조사결과

5. 오스트리아 - 호프부르크 궁전(인스부르크)



1) 위 치 : Rennweg 1, 6020 Innsbruck, 오스트리아

2) 특 성 : 역사건축

3) 시사점 : 합스부르크 왕가의 겨울 궁전으로, 13세기에 처음으로 건축되었으며 세월이 흐르며 점차 여러 부분이 추가되었다. 그 이유는 통치자들이 대를 이어 갈수록 자신이 그 전 대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 노력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에 증축된 부분은 1900년대 초반의 결과물이다. 시대가 변해도 그 역사성은 유지하였고,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였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관광명소로 사랑 받을 수 있다. 마을 만들거나 도시재생 시에도 건물이 가지는 역사성은 최대한 유지하되 필요에 부응하는 역할을 건물에 부여함으로써 존재 이유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